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북 선수단 출정식

29일 경남 일원서 1800여명 선수 참가... 전기제어·피부미용 등 31개 직종·87명 전북 명예걸고 출전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31개 직종 87명 규모의 전라북도 선수단이 출정한다.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22일 도청 회의실에서 선수단장과 선수단 대표 2명, 전북기능경기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단 출정식을 가졌다.

전북선수단은 전북기능경기위원장인 김관영 도지사에게 훈련 결과보고와 함께 출정신고를 했으며, 김지사는 이들에게 전북선수단기를 수여했다.

선수단 대표로 참석한 전기제어 직종의 이강민 선수(전주공고 2학년)와 피부미용 직종의 이효림 선수(개인)는 전북을 대표해 출전하는 만큼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전라북도 선수단은 지난 4월 전북기능경기대회에서 선발된 선수들로, 드론, 목공, 피부미용 등 31개 직종에 87명이다.

전북도에서는 훈련지원 종합계획을 통해 전략직종의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특별훈련 지원 등 선수단 육성에 힘쓰고 있다.



2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정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선수대표(이강민, 이효림), 신장호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장, 선수단장등 참석자들이 참가신고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도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월 100만 원씩 2년간 특별 지원한다.

그동안 선수단은 코로나19 재확산세와 폭염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훈련에 매진해 기량을 키워왔고 마지막까지 연일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한편,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오는 8월 29일부터 9월 5일까지 8일간 경상남도 일대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53개 직종 1,800여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루며, 이번 대회 입상자에게는 메달, 상금과 해당직종 산업기사 실기시험 면제 특권이 제공되며, 국가대표 선발 평가전을 거쳐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출전 기

회를 얻는다.

김관영 도지사는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위해서는 숙련기술인으로 나아갈 선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북을 대표한 선수들이 예선에서 마음껏 펼쳤던 재능과 열정을 전국대회에서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전북 고교생 심폐소생술 대회

도내 고교 8개팀 참가... 정음 학산고 '최우수상'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전 북지역 고교생들에게 응급의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심폐소생술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제14회 전라북도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도는 지난 19일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전북대학교병원 주위로 전북대병원 백제홀에서 ‘제14회 전라북도 고등학생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총 8개팀이 참가해 심폐소생술 수행 능력을 겨뤘으며, 12일 이론 및 실기로 이뤄진 사전교육과 19일 본대회인 경연대회로 진행됐다.

사전교육에서는 응급의학과장 윤재철 교수의 강의로 급성 심정지 개념과 심폐소생술 개요, 심폐소생술 방법, 자동제세동기 개념과 사용법 등을 교육했다. 이어 실기교육에서는 응급구조사들의 교육으로 의식 확인 및

구조요청,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기사용법 등을 실습했다.

대회 입상 상위 6개 팀에는 상장과 부상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정음 학산고등학교, 우수상은 전주 한일고등학교, 장려상은 전주 중앙여자고등학교, 정음 서영여자고등학교, 김제 만경고등학교, 특별상은 군산 군산고등학교가 차지했다.

전북도 이정우 보건의료과장은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한 신고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경연대회가 우리 주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힘과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역사회 심폐소생술 문화 확산을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심폐소생술 교육과 경연대회를 오는 4분기에 계획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전북도, 다부서 협업 강화로 성공사례 만든다

실국간 협업 통한 성공 사례 만들기 위한 회의 개최 첫 안건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방안 논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가 실국간 칸막이를 없앤다. 없어진 칸막이를 통해 실국간 협업을 추진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또한, 다부서 협업 강화를 통한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한 회의가 22일 개최됐다.

이 회의는 수시로 변화하고 복잡한 중앙부처 정책이나 도 주요 현

안에 대한 실국간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행정부지사 주재로 진행됐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지차 행정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새만금 해양수산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정책기획관 등 도청 주요 간부진이 참석했다.

회의 첫 안건은 '23년 1월부터 시

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발굴 방안'에 대해 이뤄졌다.

농축산·수산·문화관광·일자리·경제 분야 등 실국별로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 방안을 보고하고 실국 간 연계 및 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농축산 분야는 도내 농특산물을 활용하거나 농촌 관광 등을 통한 답례품 발굴 방안, 수산 분야는 수산물 선물세트를 활용한 방안, 문화관광분야는 답례품 전용 공연 관람권 등을 제작하는 방안, 일자리·경

제 분야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라북도 인증상품 등을 활용해 답례품을 발굴하는 방안 등을 개진했다.

실무총괄부서인 자치행정국은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전북도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발굴하고자 고향사랑기부 주요 대상을 고려한 부서별 답례품 아이디어 발굴 방안을 개진했다.

조봉업 행정부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실국 간 역량을 결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확립해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을 위한 밑거름을 만들자”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추석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 실시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라북도도는 건강증진과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된 5개반 20명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명절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등 총 95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가공 및 조리·판매업체, 선물 판매 온라인 마켓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등이다.

주요점검 내용은 △무등록·무신고 제조·판매 △유기농산물 경과 제품 사용 또는 보관 여부 △식품첨가물 사용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제사음식, 꿀비, 조기, 명태 등을 수거해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중금속,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위반업체 및 수거검사 부적합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김경수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필리핀 언론인 팸투어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동남아시아 전 북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광공사 마닐라지사와 연계, 필리핀 언론인 팸투어를 실시했다. 재단에 따르면 국제 여행시장 재개와 코로나 국제 정세 회복에 맞춰 지난 8월 'Travel Expo 2022'에 참가해 전라북도 관광상품 및 전라권 공동 홍보마케

팅을 추진했다. 이번 팸투어는 한국관광공사 마닐라 지사와 연계해 필리핀 언론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22일 필리핀 7개 언론사 관계자의 전북 투어를 시작, 전주 이원고택, 전주 한옥마을과 전통성당을 시작으로 전국 4개 권역에서 6일동안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도, 사업장 자율안전점검 선도 업소 위촉

전북도는 코로나19 방역모범업소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 45개 업소를 사업장 자율안전점검 선도업소로 위촉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촉된 업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앞장서 온 사업장으로 도내 음식점, 학원, 노래방,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앞으로 자율안전점검 선도업소는 대

한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기간(8.17.~10.14.)에 활동한다. 이들 시설은 본인 사업장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표를 사업장 입구 등에 게시한다. 또한 주변업소가 자율안전 점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홍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경수 기자

2022년 전주교육대학교 · 우석대 · 원광대 2학기 군산대 · 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스피치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욱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욱입니다.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욱

-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 전주매일 특약강사
 - 한·스피치 · 공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의제30주년 및 기관, 단체 특강 인기 강사
 - KBS TV 아침나눔, MBC TV, TV, LBN 출연 및 강연자
 - 스피치 사범대 강사 · 송정교육사 · 심리상담사
 - 저서 "655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나쁜 배운, 빛, 봄", "스피치노하우" 등

<전북도내 각 지역별 모집, 7~8월 모집, 9월 개강함>

전주교육대학교(주, 야간)	우석대학교(주, 야간)
원광대학교(주, 야간)	군산대학교(주, 야간)
전북과학대학교(정음 주, 야간)	남원스피치(야간)
김제스피치(야간)	개인지도(면접, 스피치 등)

상담전화: 010-7304-5665, 231-6669, 285-6676(주, 야간)

미술과 두뇌훈련지도사(치매예방) 과정 모집

- 모집기간 : 8월 29일까지
- 개강 : 9월 첫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 수강료 : 15만원
- 분 의 : 010-8448-2570
- 전담교수 : 문정태(미술지도사, 치매인공지능학회 전주원장)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Tel. 252-9601~2)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